

# 잡아함 110. 살차경

날짜: 8월 13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39>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바이샬리국 잔나비못 곁에 계시었다. 바이샬리국에 있는 니그로란타푸트라라는 총명하고 슬기로우 모든 이론을 잘 이해하였고, 그래서 총명하다는 교만이 있었다. 그는 널리 모은 모든 이론을 가지고 묘한 지혜는 빈틈이 없었으며 대중을 위해 설법하면 모든 논사들을 뛰어넘었다. 그는 항상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나를 당적할 자는 없다. 나아가 여래와도 능히 함께 이론할 수 있다. 모든 논사들은 내 이름만 들어도 이마에서는 진물이 나고 겨드랑이에서는 땀이 나며 털구멍에서는 물이 흐를 것이다. 내 이론의 바람은 능히 풀을 쓰러뜨리고 나무를 분지르며, 쇠나 돌을 부수고 모든 용이나 코끼리까지도 항복받거늘 하물며 인간의 모든 논사들로서 누가 능히 나를 당적하겠는가’고 생각하였다. 때에 앓사지라는 어떤 비구는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위엄스런 태도로 조용하고 상냥하며 단정한 눈길과 편안한 걸음으로 성으로 들어가 밥을 빌었다.

때에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조금 볼 일이 있어 여러 부락을 둘러 성문을 나오다가 멀리서 비구 앓사지를 보고 곧 그 곳으로 가서 물었다.

“사문 고오타마는 제자들을 위해 어떻게 설법하며 어떤 법으로써 제자들을 가르쳐 닦아 익히게 하는가.”

앓사지는 말하였다.

“불씨 거사여, 세존께서는 이렇게 설법하시어 모든 제자들을 가르쳐 공부하게 한다. 즉 ‘모든 비구들이여, <물질>에는 <나>가 없다고 관찰하고,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는 <나>가 없다고 관찰하라. 그래서 부지런히 방편을 써서 이 다섯 가지 받아들이는 <쌍임>은 병과 같고 종기와 같으며 가시와 같고 죽음과 같으며 덧없고 괴로우며 공이요 <나>가 아니라고 관찰하

라고 말씀하신다.”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앗사지여, 너는 반드시 잘못 들은 것이다. 사문 고오타마는 끝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사문 고오타마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곧 샷된 소견이다. 나는 이제 그에게 가서 힐난하여 그 소견을 그만두게 하리라.”

그 때에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부락의 여러 리차뷔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여러 리차뷔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 사문 고오타마의 제자로서 앗사지라는 사람을 만나 대강 이론하였다. 만일 그가 말한 것과 같다면 나는 저 사문 고오타마에게 가서 서로 이론하되 나아가고 물러나며 빙빙 돌려 꼭 내 생각을 따르게 하리라. 마치 사부가 잔디풀을 베어 그 줄기를 쥐고 공중에 흔들어 그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과 같이 나도 또한 그와 같이 사문 고오타마와 같이 이론하고 힐난하되, 그 요령을 잡아 나아가고 물러나며 빙빙 돌려 그 생각을 따르면서 그 샷된 말은 버리리라. 또 마치 술집에서 술 주머니를 쥐어 짜서 진국을 받고 그 찌꺼기를 버리는 것과 같이 사문 고오타마에게 가서 이론하고 힐난하되, 나아가고 물러나며 빙빙 돌려 그 진짜를 취하고 그 샷된 말은 버리리라. 또 마치 자리 장수가 자리에 더러운 물건을 담았다가 시장에 팔려고 할 때는 물로 자리를 씻어 더러운 냄새를 없애는 것과 같이 나도 또한 것처럼 사문 고오타마에게 가서 이론하고 힐난하되, 나아가고 물러나며 그 요령을 잡고 온갖 더러운 말을 버리리라. 또 마치 왕가의 코끼리를 다루는 사람이 큰 취한 코끼리를 끌고 깊은 물에 들어가 그 몸을 씻고 사지와 귀와 코를 두루 목욕시켜 더러운 티끌을 닦는 것과 같이 나도 또한 그와 같이 사문 고오타마에게 가서 이론하고 힐난하되, 나아가고 물러나며 빙빙 돌리기를 내 마음대로 하고 그 요령을 잡고 온갖 더러운 말은 버리리라. 너희 모든 리차뷔들도 또한 함께 가서 그 승부를 보아야 하리라.”

그 중의 어떤 리차뷔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차카 니간타푸타로서 사문 고오타마와 서로 이론한다는 것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였다.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총명하고 날카로워 능히 함께 이론할 수 있으리라.”

때에 오백 명 리차뷔들은 부처님과 이론하기 위해 사차카 니간타푸타와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그 때에 세존께서는 큰 숲속의 한 나무 밑에 앉아 선정에 들어 계시었다. 때에 많은 비구들은 방 밖으로 나와 숲속을 거닐다가 멀리서 사차카 니간타푸타를 보았다. 그는 차츰 비구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여러 비구들에게 물었다.

“사문 고오타마는 지금 어디 있는가.”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큰 숲속 나무 밑에서 선정에 들어계신다.”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곧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공손히 인사하고 한 쪽에 앉았다. 모든 리차뵈 장자들도 또한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공경하는 사람과 합장하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 인사를 마치고 한 쪽에 서 있었다. 때에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부처님께 여쭙었다.

“나는 사문 고오타마는 이렇게 설법하고 이렇게 여러 제자 비구들을 가르쳐 인도한다고 들었다. 즉 ‘물질에는 <나>가 없다고 관찰하고,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도 <나>가 없다고 관찰하라. 부지런히 방편을 써서 이 다섯 가지 쌓임은 병과 같고 종기와 같으며 가시와 같고 죽음과 같으며 덧없고 괴로우며 공이요 <나>가 아니라고 관찰하라’고 과연 고오타마는 이렇게 가르치는가. 혹은 전하는 사람이 고오타마를 비방하려고 하는 말인가. 말다이 한 말인가. 법과 법을 따라서 한 말인가. 다른 사람이 와서 힐난할 때 지는 일은 없는가.”

부처님께서서는 사차카 니간타푸타에게 말씀하시었다.

“네가 들은 바와 같다. 그는 말한 그대로 말하였고 법다이 말하였고 법과 법을 따라 말하였다. 나를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또한 힐난하여 나를 지게 한 일도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실로 모든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설법하였고 나는 실로 모든 제자들을 가르쳐 내 법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즉 ‘물질엔, <나>가 없고,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도 <나>가 없다고 관찰하고, 이 다섯 가지 받아들이는 <쌓임>은 병과도 같고 종기와 같으며 가시와 같고 죽음과 같으며 덧없고 괴로우며 공이요 <나>가 아니라고 관찰하게 하였다.”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부처님께 여쭙었다.

“나는 이제 비유로 말하리라.”

“마음대로 하라.”

“비유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땅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물질은 곧 <나>로서 선악은 그것으로부터 생기며,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은 곧 <

나>로서 선과 악은 그것으로부터 생긴다. 다시 비유하면 사람 세계나 귀신 세계나 약초나 나무들이 다 땅을 의지하여 나고 자라는 것처럼 그와 같이 물질은 곧 <나>요, 느낌·생각·지어감·의식도 곧 <나>다.”

부처님께서는 불씨 거사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과연 물질은 곧 <나>요, 느낌·생각·지어감·의식도 곧 <나>라고 말하는가.”

“그렇다. 고오타마여. 물질은 곧 <나>요, 느낌·생각·지어감·의식도 곧 <나>다. 이 여러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한다.”

“우선 네 주장을 살려 여러 사람들을 이끌기로 하자.”

“그렇다 물질은 곧 <나>다.”

부처님께서는 불씨 거사에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이제 너에게 물으리니 네 마음대로 대답하라. 비유하면 어떤 국왕이 자기 나라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혹은 죽이고 혹은 묶으며 혹은 내어 쫓고 혹은 때리며 손과 발을 끊는다. 그러나 만일 공이있는 사람이 있으면 코끼리·말·수레·성·읍·재물·보배를 주나니 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고오타마여.”

“무릇 주인된 사람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렇다. 고오타마여.”

“너는 말하기를 물질은 곧 <나>요, 느낌·생각·지어감·의식도 곧 <나>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그것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지 않게도 할 수 있겠는가.”

때에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잠자코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불씨 거사에게 말씀하시었다.

“빨리 말하라. 빨리 말하라. 왜 잠자코 있느냐.”

이렇게 두 번 세 번 독촉하였으나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여전히 잠자코 있었다. 때에 금강역사 귀신은 금강저를 가지고 사나운 불꽃을 일으키면서 허공에서 사차카 니간타푸타의 머리위에 내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께서 두번 세번 물으시는데 너는 왜 대답하지 않는가. 나는 이 금강저를 가지고 네 대가리를 부수어 일곱 조각을 내리라.”

그러나 부처님의 신력이 있기 때문에 다만 사차카 니간타푸타만이 금강신을 보았고 다른 무리들은 보지 못하였다.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크게 두려워하여 부처님께 여쭙었다.

“그렇지 않나이다. 고오타마시여.”

부처님께서서는 사차카 니간타푸타에게 말씀하시었다.

“천천히 생각한 뒤에 대답하라. 너는 아까 대중 가운데서 물질은 곧 <나>요, 느낌·생각·지어감·의식도 곧 <나>라고 말하였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말하니 앞뒤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가. 너는 이전에는 언제나 물질은 곧 <나>요, 느낌·생각·지어감·의식도 곧 <나>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불씨 거사여, 나는 이제 너에게 물으리라. 물질은 항상된 것인가. 항상 되지 않은 것인가.”

“항상 되지 않나이다. 고오타마시여.”

“항상 되지 않은 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고오타마시여.”

“덧없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니라. 그런데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로서 과연 거기서 <나>와 <다른 나>와 그 둘의 합한 것을 보겠는가.”

“아닙니다. 고오타마시여.”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있어서 또한 그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서는 불씨 거사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잘 생각한 뒤에 말하라.”

다시 불씨 거사에게 물으시었다.

“만일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여의지 못하고 욕심을 여의지 못하며, 생각을 여의지 못하고 사랑을 여의지 못하며, 애탐을 여의지 못하였는데 만일 그 물질이 변하거나 혹은 달라지면 곧 근심과 슬픔·번민·괴로움이 생기겠는가.”

“그러하나이다. 고오타마시여.”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있어서 또한 그와 같으니라.”

다시 불씨 거사에게 물으시었다.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여의고 욕심을 여의었으며, 생각을 여의고 사랑을 여의었으면, 애탐을 여의었으면 그물질이 변하거나 혹은 달라지더라도 곧 근심과 슬픔·번민·괴로움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하나이다. 고오타마시여, 진실로 그래해 틀림이 없나이다.”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불씨 거사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고통을 몸에 지니고 언제나 고통과 함께 있는데 그 고통을 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서 과연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고오타마시여.”

“그와 같이 불씨 거사여, 여러 가지 고통을 몸에 지니고 항상 그 고통과 함께 있는데 그 고통을 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서는 즐거움을 얻을 수 없느니라. 불씨 거사여, 비유하면 사부(士夫)가 도끼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 단단한 알맹이 있는 재목을 찾다가 크고 살찌고 곧은 파초를 보고 곧 뿌리와 잎을 끊어 껍질을 모조리 벗겨 보아도 단단한 알맹이는 도무지 없는 것처럼 불씨 거사여, 너도 또한 그와 같다. 너는 스스로 주장을 세웠지마는 내가 이제 그 진실한 이치를 찾았으나 단단한 알맹이가 도무지 없는 것이 마치 파초와 같구나. 그런데 너는 대중 가운데 감히 말하였다. 즉 ‘나는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이나 바라문이나 또 많이 아는 여래·응등정각과 서로 이론해서 행복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리고 또 스스로 말하였다. 즉 ‘내 이론의 바람은 풀을 쓰러뜨리고 나무를 꺾으며 쇠와 돌을 부수고 용과 코끼리를 행복받으며 또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이마에서 진물이 나고 겨드랑에서 땀이 나며 털구멍에서 물이 흐르게 하리라’고. 그런데 너는 이제 자기주장을 이론하다가 스스로 서지 못하고 먼저 빠지며 말한 것이 행복되고 말았다. 자기주장에 전력을 다하였지마는 여래의 털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였구나.”

그 때 세존께서는 대중 가운데서 울다라승을 헤치고 가슴을 나타내어 보이면서 말씀하시었다.

“너희들은 시험삼아 보라. 여래 털 하나인들 움직이게 하였는가.”

그 때에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잠자코 머리를 숙이고 부끄러워 얼굴빛이 변하였다. 그 때에 대중 가운데 있던 담무카라는 리차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여민 뒤에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제 비유를 말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마음대로 하라.”

“세존이시여, 비유하오면 어떤 사람이 말을 가지고 큰 곡식 무더기에서 두 세 말을 떠내는 것처럼 이제 이 사차카 니간타푸타도 또한 그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오면 재물이 많은 큰 부자 장자가 갑자기 죄를 지어 재물 전부가 왕가에 들어간 것처럼 사차카 니간타푸타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가 가진 말 재주는 다 여래님에게 거두어졌나이다. 비유하오면 성읍이나 부락 곁에 큰 물이 있는데 남·녀·노·소들이 그 물에 들어가 장난하다가 물 속에서 게를 잡아 그 발을 다 끊고 육지에 두면 게는 발이 없기 때문에 다시 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사차카 니간타푸타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가 가진 모든 말 재주는 다 여래님에게 끊기었나이다. 그래서 마침내 감히 여래님에게 다시 와서 적이라고 이론하지 못하게 되었나이다.”

그 때에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불꽃처럼 화를 내어 담무카 리차뵈를 호통쳤다.

“이 더럽고 무식한 놈아,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지껄이느냐. 나는 사문 고오타마와 이론하는데 네가 무슨 참견이냐.”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담무카를 꾸짖은 뒤에 다시 부처님께 여쭙었다.

“저 천하고 더러운 속물의 말은 그만두옵고, 나는 이제 달리 물을 것이 있나이다.”

“마음대로 물으라. 묻는 대로 대답하리라.”

“고오타마시여, 제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설법하시어 그 의혹을 떠나게 하나이까.”

“나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 ‘모든 물질로써 혹은 과거거나 미래거나 현재거나 안이거나 밖이거나 굵거나 가늘거나 좋거나 더럽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그 일체는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르지도 않으며, 둘의 합한 것도 아니라고 참다야 관찰하라’고 말한다.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그들은 이렇게 배워서 반드시 도를 보아 무너지지 않고 감당해 나가 성취하며, 그것을 싫어하고 여의어야 할 것을 알고 보아서 <단 이슬문>을 지킨다. 그래서 비록 마지막 진리를 완전히 얻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우선 <열반>으로 향하니 이렇게 제자들은 내가 가르치는 법을 좇아 의혹을 떠나게 되느니라.”

“고오타마시여, 다시 어떻게 모든 제자들을 가르쳐 그들은 불법 안에서 모든 번뇌를 다하게 되어 누(漏)가 없어, 마음이 해탈하고 슬기가 해탈하여 현재에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증득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다시는 후생 몸을 받지 않을 줄을 스스로 알게 되나이까.”

“바로 이 법이니라. 즉 모든 물질로써 과거거나 미래거나 현재거나 안이거나 밖이거나 굵거나 가늘거나 좋거나 더럽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그 일체는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르지도 않으며, 그 둘의 합한 것도 아니라고 참다야 아는 것이요, 느낌·생각·지어감·의식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그들은 그 때에 세 가지 위없음을 성취한다. 즉 지혜의 위없음과 해탈의 위없음과 해탈지견의 위없음이다. 이 세 가지 위없음을 성취한 뒤에는 그 스승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공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느니라. 나는 일체 법을 깨

달았다. 그 법으로써 제자들을 다루어 안온을 얻게 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며 마음을 행복받고 지극히 고요하여 <열반>을 완전히 이루게 한다. 나는 이 <열반>을 위하여 모든 제자들에게 설법하느니라. 불씨 거사여, 내 제자들은 이 법 안에서 모든 누를 다하게 되어 마음의 해탈을 얻고 슬기의 해탈을 얻는다. 그래서 현재에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증득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생명을 받지 않을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장부의 칼날이 어지러이 내리치는 것은 오히려 면할 수 있지마는 고오타마의 이론의 손에는 벗어날 수가 없나이다. 또 독사는 (그릇에 담긴 독사는) 오히려 피할 수 있고, 빈 들의 사나운 불길은 오히려 피할 수 있으며, 흉악한 술 취한 코끼리도 또한 면할 수 있고 미치고 굶주린 사자도 다 면할 수 있지마는, 사문 고오타마의 이론의 손아귀에서는 벗어나기가 어렵나이다. 나같은 어리석고 경박한 사내의 완전히 갖추지 못한 이론으로써 이론 하기 위해 고오타마에게 온 것은 아닙니다.

고오타마시여, 이 바이샬리는 풍족하고 즐거운 나라로써 차피리지제·칠암라수지제·다자지제들이 있나이다. 고오타마께서는 구루타지제나, 바라수지제나, 사중담지제나 역사 보관지제에 계시소서. 그래서 세존이시여, 바이샬리에 계시면서 모든 하늘·악마·범·사문·바라문과 모든 세간을 안락하게 하소서. 그래서 세존을 항상 공경하여 받들어 섬기고 공양함으로써 저 모든 하늘·악마·범·사문·바라문들로 하여금 긴 밤 동안 안락을 얻게 하소서. 원하옵나니 여기 계시다가 내일 아침에 대중들과 함께 변변찮은 내 공양을 받으소서.”

그 때에 세존께서는 잠자코 허락하시었다. 때에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세존께서 잠자코 허락하신 것을 알고 대중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갔다.

그 때에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가는 도중에 모든 리차뵈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미 사문 고오타마와 모든 대중들을 청해 음식을 올리려고 한다. 너희들은 각각 한 가마씩 밥을 준비해 내게로 보내라.”

모든 리차뵈들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 밥을 세워 준비해 가지고 이른 아침에 사차카 니간타푸타에게로 보내었다.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이른 아침에 깨끗이 소제하고 자리를 펴고 깨끗한 물을 준비한 뒤에 사람을 보내어 부처님께 여쭙었다.



“때가 되었나이다.”

그 때에 세존께서는 대중들과 함께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사차카 니간타푸타 집으로 가서 대중 앞에 앉으시었다.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손수 청정한 음식을 베풀어 대중을 만족하게 하였다. 공양이 끝나고 바루도 다 씻었다.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고 바루를 씻으신 줄을 알고 낮은 평상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 앞에 앉았다.

그 때에 부처님께서 사차카 니간타푸타를 위해 수희계를 말씀하시었다.

모든 대회 중에서는  
불을 받드는 것이 제일이 되고  
베다 경전 중에서는  
바비제가 제일이 되네.

사람 가운데서는  
임금이 제일이 되고  
모든 물가운데서는  
바다가 제일이 되네.

모든 별 가운데서는  
달이 제일이 되고  
모든 밝음 가운데서는  
해가 제일이 되며  
시방의 하늘과 사람 가운데서는  
〈등정각(等正覺)〉 제일이 되네

그 때에 세존께서는 사차카 니간타푸타를 위해 여러 가지로 설법하시어 가르치시고 기쁘게 하신 뒤에 자기 처소로 돌아가시었다. 때에 모든 비구들은 돌아가는 중에 서로 의논하였다.

“저 5백명 리차뵈는 각각 사차카 니간타푸타를 위해 음식을 마련해 주었다. 저 모든 리차뵈들은 무슨 복을 받고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무슨 복을 받을 것인가.”

그 때에 모든 비구들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 옷과 바루를 챙겨 두고 발을 씻은 뒤에 세존에게 나아가 머리 숙여 세존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 쪽에 앉아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아까 도중에서 서로 의논하였나이다. ‘저 5백 명의

리차뷔들은 사차카 니간타푸타를 위해 음식을 마련하여 세존과 모든 대중들에게 공양하였다. 저 모든 리차뷔들은 무슨 복을 받고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무슨 복을 받을 것인가'고.”

부처님께서서는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저 모든 리차뷔들은 사차카 니간타푸타를 위해 음식을 마련하였으니 그들은 사차카 니간타푸타를 인연하여 복을 얻을 것이요,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복으로써 부처님의 공덕을 얻을 것이다. 저 모든 리차뷔들은 보시함으로써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 인연의 과보를 얻을 것이요, 사차카 니간타푸타는 보시함으로써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인연의 과보를 얻을 것이니라.”

‘피다라십문과  
차마와 염마와 선니와  
아누라와 장자와  
서와 모단과 살차다.’

---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